

치 사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태원스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과 직원, 재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동량을 배출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설립한 현대적 승려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학교는 1979년 개교한 이래 한국불교의 역군들을 배출해왔습니다. 1천여 명의 동문들은 한국불교의 발전과 종단의 혁신은 물론 한국사회의 발전과 민주화에 이르기 까지 수없이 많은 역할들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계종의 종지(宗旨)를 받들어 불교를 중흥하고 종풍(宗風)을 선양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할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중앙승가대학교의 설립이념을 잘 실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격변하는 인류문명 속에서 중앙승가대학교 역시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IT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쇄신을 거듭하고 있는 지식정보는 지금 우리에게 더 이상 복고적 학문에 매달려 있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 역시 글로벌 지식경쟁력을 확보하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불교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훌륭한 모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기 500년경 세워진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불교대학인 나란다대학입니다. 나란다대학은 왕오천축국전을 쓴 우리의 선조 혜초스님은 물론 대당서역기를 기술한 중국의 현장법사까지 수학을 하고자 했던 국제적인 대학이었습니다. 현장법사는 당시 나란다대학에 전 세계에서 몰려든 1만여 명의 학생과 2천여 명의 교수가 함께 지식을 연마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란다대학이 역사상 최초의 글로벌 대학이었으며 지식과 학문의 발원지였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이어 중앙승가대학교를 오늘의 나란다대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눈부시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중생을 교화하여 인류의 안락을 증진하는 선지식(善知識)을 양성'하겠다는 본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문과 재학생들이 지금의 지식 정보화 사회를 이끌 수 있는 내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옛 고사에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국시대의 사상가 순자가 '배움이란 다함이 없는 것이다. 청색은 그것을 쪽에서 취하였지만 쪽빛보다 푸르고, 얼음은 물에서 생긴 것이지만 물보다 차다'고 한 것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흔히 스승보다 훌륭한 제자를 말할 때 이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학위를 수여받는 졸업생들에게 청출어람이라는 이 말을 가슴에 새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로 중앙승가대학교를 졸업하지만 공부를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더욱 노력하여 교수님들은 물론 역대 선지식보다 나은 수행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학위를 받으시는 스님들은 그동안 중앙승가대학교의 실천 강령에 따라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화하고 생활화하고 대중화하겠다는 이 실천 강령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화하고 생활화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종단의 일원, 사부대중의 일원, 사회의 일원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졸업을 하게 되는 스님들께 지난 4년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함께 수고해 주신 총장스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교직원과 재학생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중앙승가대학교가 이곳 김포학사로 이전한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때를 맞아 중앙승가대학교가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5년 2월 24일

학교법인승가학원 이사장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